

---

## 結婚의 質과 幸福感의 男女 및 家族生活週期 差異

徐 文 姬

---

이 연구는 結婚의 質 및 이것이 일반적 幸福感에 미치는 영향의 남녀 및 가족생활주기별 차이를 파악하여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1994년도 家族生活實態調查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의 질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성별로는 결혼의 질은 부인보다 남편이 높으나 이것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남편보다는 부인의 삶에서 결혼의 비중이 더 큼을 반영한다 하겠다. 특히 心理的 特性이 강한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이 결혼에 대한 가치 평가에 비해 큰 영향력을 갖는다. 家族生活週期別로는 부인의 행복에 있어서 부부관계 만족은 모든 가족주기에 걸쳐 사회적 지위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변수이나, 남편은 자녀출산 이후 그 영향력은 상당히 감소하고, 특히 막내자녀가 초중고생인 때는 건강이나 사회적 지위가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부관계 만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삶을 위한 결혼의 질의 중요성을 볼 때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을 통한 家族生活教育의 擴大 및 強化를 장기적 정책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인간의 외적 조건뿐 아니라 내면적인 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부부됨, 부모됨, 자녀 출산 및 양육, 노령화 등 가족주기 진행에 따르는 역할과 기능의 변화에 대한 體系的인 生涯教育이 個人의 安寧 增進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原稿를 검독하여 주신 李顯松 副研究委員·鄭京姬 責任研究員께 감사드립니다.

## I. 研究背景 및 目的

우리 나라는 1980년대초부터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이혼 및 재혼이 증가하는 등 結婚 樣相이 다양해지고 있고(통계청, 1995), 이에 따른 가족구조적 변화로 家族의 機能이나 役割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結婚은 社會의 基本 要素로써 변함없이 社會的 價値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녀가 아무리 성장하여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야 본인은 물론 부모나 주위에서도 제 役割을 다하고 社會的 期待를 충족시켰다고 본다.

1995년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삶의 질이라는 용어가 福祉라는 말과 함께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結婚의 質은 물질, 환경, 문화 등 인간의 外的 要因뿐 아니라 心理的, 內面的인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삶의 질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結婚 및 家族生活의 質은 매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고 주로 부인과 남편의 개인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정확한 규명이 어려운 연구 영역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서 매우 多樣한 方法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概念 자체도 결혼의 질, 결혼만족, 결혼행복, 적응, 결혼안정 등이 研究目的이나 이용가능한 資料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結婚의 質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結婚滿足 개념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결혼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交換理論 및 役割理論이 자주 언급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적 논의보다는 實際世界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한데, 그 개념 및 측정방법에 있어 調整學派(Adjustment School)와 個人感性學派(Individual Feeling School)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Glenn, 1990). 전자는 의사소통, 동반적 활동, 갈등 등

夫婦間의 關係의 特性 등 여러 항목을 바탕으로 指標를 개발하여 결혼의 질을 파악한다면, 후자는 결혼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고 있는 主觀的 느낌이나 感情的 評價를 결혼의 질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는 調整學派가 지배적이었으나(Spanier & Lewis, 1980) 1980년 이후에는 個人感性學派的 研究가 더 활발해지고(Glenn, 1990),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이후 결혼만족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며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主觀的 感情이나 選好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나 감정적 평가를 결혼의 질로 개념화하고 있는 個人感性學派에 의하면 일치정도, 갈등 등은 전반적인 만족감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주고 받는 요인이라는 것이다(Fincham & Bradbury, 1987). 조정학파들이 사용하던 결혼의 질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변수는 요인분석에서 서로 차원을 달리하며 설사 결혼만족과 부부간 상호작용처럼 같은 차원의 변수라고 하여도 이를 반드시 하나의 지표로 묶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결혼의 질을 단 하나의 질문을 통하여 측정하려는 경향이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結婚의 質 資料는 GSS(General Social Survey) 자료로써 여기서는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당신의 결혼생활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결혼은 매우 행복, 약간 행복,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중 어느 것입니까?” 라는 單一 質問으로 결혼의 질을 측정하였다(Glenn, 1990).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단일 질문을 통하여 配偶者와의 關係를 전반적 가정생활, 경제적 생활,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과 함께 하나의 主觀的 指標로 활용하고 있다(통계청, 1995).

결혼의 질과 관련된 研究의 상당수는 이를 從屬變數로 보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수준, 가족의 수입, 남편의 직업지위 등 社會經濟的 變數와 正의 關係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부인 취업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家族生活週期에 따라서는 결혼의 질이 U자형을 나타낸다는 것이 일반

적 통설이지만 이와는 달리 중반 이후부터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주장(Vailiant & Vailiant, 1993)도 있다. 子女의 出生은 결혼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婦人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또한 性生活이나 가족에 대한 근대적 가치관과 같은 社會心理的 要因, 그리고 配偶者 役割遂行에 대한 높은 평가 및 기대일치도 결혼의 질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결혼의 질은 獨立變數로써 結婚의 安定性에 영향을 주어 질 높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는 결혼을 持續시키려는 경향이 높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부부는 결혼을 解體시키려는 경향이 높다(김미숙·김명자, 1990).

또한 결혼의 질은 개인의 主觀的 安寧感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Glenn & Weaver(1981)는 일, 건강 등 7개 생활 영역의 만족감과 GSS의 단일 척도로 측정된 결혼의 질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인종 및 성별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흑인남성을 제외하고는 結婚 滿足이 幸福感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변수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Benin & Niensdedt(1985)도 GSS의 단일 척도를 이용하여 결혼의 질, 교육, 직업만족, 가족생활주기의 4개 변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행복감 정도를 매우 행복하다와 그 나머지로 이분할 경우 結婚 滿足이 가장 강한 影響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결혼의 질은 건강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건강에 영향도 미치는데 心理的 健康은 물론 身體的 健康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aenz, Goudy & Lorenz, 1898; 徐文姬, 1994).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자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結婚의 主觀的 質이 부인 및 남편의 주관적 삶의 질인 一般的 幸福感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 그 家族週期別 差異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단일 척도로 측정된 결혼생활의 주관적 질을 구성하는 구체적 내용이 부인·남편 및 가족생활주기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 II. 研究方法

본 분석에는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1994년에 실시한 家族生活實態調查 資料가 사용되었다. 동 조사는 전국에서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2,666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sup>1)</sup>, 이들 자료 중 15~59세 有配偶 應答者의 조사결과만을 별도로 뽑아서 본 분석 자료로 삼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結婚의 質은 夫婦關係 滿足度와 結婚生活에 대한 評價를 통해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夫婦關係 滿足度는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세부적으로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하여 응답자에 대한 배우자의 애정과 이해도,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 부부의 성생활, 배우자가 부담하는 가사의 양, 배우자의 소비성향 등 5개 항목의 만족정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는데, 각각 ‘대단히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 ‘대단히 불만’에 5~1의 점수를 주어 척도화하였다. 結婚生活에 대한 評價는 역설적으로 “만약 응답자께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가정한다면 생활은 지금의 생활에 비해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사용하여 결혼생활 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생활수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 존경, 정신적 안정, 부모와의 관계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훨씬 나빠졌을 것이다’ ‘다소 나빠졌을 것이다’,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다소 좋아졌을 것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라는 응답에 각각 5~1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한편 幸福感은 “현재의 자신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단히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저 그렇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 ‘대단히 불행하다’의 보기에 5~1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家族生活週期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 이 조사의 내용 및 분석 결과는 장현섭·김현옥·배화옥이 1994년에 발간한 『가족영역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에 제시되어 있다.

일찍이 Duvall(1962)이 家族開發 觀點에서 美國人의 家族生活週期를 8 개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여러 학자들이 研究 目的이나 資料에 따라 多樣한 方法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및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류를 참고하여 60세 미만의 有配偶者를 자녀가 없으면서 40세 미만인 경우, 막내자녀가 만 0~6세, 7~12세, 13~18세, 19세 이상인 경우의 5개 集團으로 구분하였다<sup>2)</sup>. 이는 자녀의 출산, 자녀의 국민학교 입학, 자녀의 중학교 입학,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 등의 변화에 따라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의 역할, 가사노동의 양과 종류에 변화가 오고 이것이 夫婦關係 및 結婚에 대한 認識에 變化를 준다는 가정에 의한 것으로, 기존자료가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령으로 學齡을 가름하고자 한 것이다(表 1 참조).

한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統計 分析方法으로는 결혼의 질에 대한 남녀 및 가족생활주기별 차이는 F 및 T 分析을 이용하였으며, 결혼의 질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重回歸分析을 사용하였다.

〈表 1〉 家族生活週期 區分

가족생활주기 구분	부인		남편	
	평균연령(SD)	N	평균연령(SD)	N
I 자녀가 없는 40세 미만	27.7(3.7)	52	31.6(3.5)	53
II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 0~6세	32.3(4.0)	214	34.8(4.2)	202
III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 7~12세	37.8(3.7)	154	41.0(4.7)	161
IV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 13~18세	43.5(5.0)	191	47.6(4.8)	233
V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만 19세 이상	51.4(5.0)	181	54.2(3.8)	178
전체	40.2(8.7)	791	43.2(8.7)	827

2) 가족생활주기 분류에 있어 단계 II를 아동의 연령 3세를 기준으로 하여 둘로 나누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이를 하나의 단계로 설정하였다.

### Ⅲ. 結婚의 質

#### 1. 夫婦關係에 대한 滿足度

1994년도 가족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夫婦關係 全般에 대해 ‘대단히 만족’과 ‘만족’을 합한 비율은 부인 53.7%, 남편 64.9%이고,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 및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 滿足의 比率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이 조사자료 중 대상자를 15~59세 유배우자로 제한하고 무응답자를 제외하여 점수화하여 平均을 내었는데 그 결과는 부인 3.56, 남편 3.73으로 나타났다. 부인·남편 모두 子女出生 以前이 가장 높은 夫婦關係 滿足도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다(表 2 참조). 그러나 남편과 부인의 차이는 가족생활주기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부부관계 만족도는 家族週期에 따라 U자를 나타낸다는 일반적 통설과는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연령은 59세까지로 제한하고 老年期를 除外시켰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表 2〉 家族生活週期別 婦人과 男便의 夫婦關係 滿足 程度

성별	전체(SD)	가족생활주기					F(df=4)
		I	II	III	IV	V	
부인	3.56(.69)	3.87	3.65	3.52	3.42	3.49	6.27**
남편	3.73(.67)	4.04	3.73	3.86	3.67	3.61	6.18**
T	5.75**						

註: 1) 1~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정도가 높음.

2) \*\*는 p<.01임.

3) 비교자료로써 1994년도 한국의 사회지표로 통계청(1995)이 발표한 배우자에 대한 만족률은 부인 54.2%, 남편 61.6%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낸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男便의 夫婦關係 滿足은 막내가 0~6세인 단계 II가 出産 以前인 단계 I에 비해 낮아지는 정도가 부인보다 심하고 이 시기의 만족도는 7~12세 때 보다 낮다는 점이다. 즉, 子女의 出生은 夫婦 滿足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지만 그 영향이 婦人보다는 男便에게서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差異가 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보면 부인보다는 남편의 만족정도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는 配偶者 役割 要因의 家族週期別 差異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배우자의 애정 및 이해도, 성, 가사부담의 양, 함께 보내는 시간, 소비성향과 같은 配偶者의 具體的 役割에 대한 評價를 통해서 전반적인 부부관계 選好程度가 구성된다고 보고 이들의 구성비율이나 상대적인 중요도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따라서 부부관계 전반에 대한 滿足도를 從屬變數로 하고 배우자의 5개 역할에 대한 만족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4)</sup>. 역할 이외의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 역할요인은 전반적 부부관계 만족과 높은 單純相關關係를 보이고 있고 相互 影響을 주고받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한 차원의 척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체적인 만족과 영역별 만족을 구분하여 전체적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領域別 滿足의 家族週期別 相對的 重要度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表 3>은 이들 구체적인 역할 5개 항목에 대한 성별·가족생활주기별 차이이다. 전반적으로 부부관계 전체에 대한 만족과 유사하게 婦人과 男便의 差異는 모두 統計的으로 有意하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는 항목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부인, 남편 모두 愛情인 반면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婦人은 配偶者의 家事負擔, 男便은 夫婦가 함께 보내는 時間에 대한 만족이다. 특히 배우자 가

4) 독립변수들간의 단순상관계수는 비교적 높으나 가장 높은 것이 애정에 대한 만족과 성에 대한 만족으로 남편 .629, 부인 .601이다.



사부담 양에 대한 만족도는 부부간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부인의 경우는 자녀 출산 이전을 제외하고는 가족생활주기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表 3〉 家族生活週期別 婦人과 男便의 配偶者에 대한 具體的 要因의 滿足 程度

구체적 요인	전체(SD)	가족생활주기					F(df=4)
		I	II	III	IV	V	
부인							
애정	3.63(.75)	4.04	3.74	3.64	3.46	3.40	11.58**
성	3.50(.68)	3.86	3.56	3.52	3.37	3.34	8.12**
부부시간	3.31(.81)	3.66	3.21	3.40	3.29	3.33	3.72**
가사부담	3.00(.91)	3.22	2.97	2.98	2.94	3.04	1.12
소비성향	3.28(.86)	3.57	3.31	3.12	3.22	3.29	2.91*
남편							
애정	3.78(.74)	4.14	3.78	3.85	3.72	3.67	4.90**
성	3.62(.70)	3.86	3.68	3.69	3.56	3.43	6.26**
부부시간	3.47(.76)	3.61	3.34	3.49	3.51	3.53	2.42*
가사부담	3.57(.77)	3.77	3.43	3.65	3.58	3.60	2.98*
소비성향	3.64(.73)	3.77	3.65	3.67	3.67	3.65	.70

註: 1) 1~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정도가 높음.  
 2) 남편과 부인의 차이는 6개 변수 모두 통계적 유의도는 p<.01임.  
 3) \*는 p<.05, \*\*는p<.01임.

그러나 이들 구체적 요인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說明力에 있어서는 絶對 滿足 程度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表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愛情, 性, 消費性向의 순으로 부부관계 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에 비해서 家事負擔이나 夫婦時間 滿足의 영향은 약하다. 가장 중요한 요인인 애정과 성은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남녀가 차이를 보여, 婦人에게는 愛情, 男便에게는 性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性은 남편·부인 모두에게 단계 I에

비해서 子女養育期인 단계 II에 급격히 그 중요도가 감소하는데, 그 후에는 부인에게는 중요성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나, 남편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배우자의 消費性向도 애정이나 성에 비해 비중은 떨어지지만 子女出産 以後 부인·남편 모두에게 비교적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夫婦가 함께 하는 時間의 양은 막내자녀가 19세 이상인 단계 V로 父母의 役割이 줄어드는 시기에 남편·부인 모두의 부부관계 만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부인에게 가장 낮고 남편·부인간의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配偶者 家事負擔에 대한 만족도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사노동의 양이 가장 많은 시기인 단계 II에서 부인의 부부 만족도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表 4〉 家族生活週期別 夫婦關係 全般에 대한 滿足度에 影響을 주는 具體的 滿足 要因의 標準回歸係數(Beta)

구체적 요인	전체	가족생활주기				
		I	II	III	IV	V
부인						
애정	.427**	.246	.406**	.444**	.480**	.402**
성생활	.198**	.430**	.272**	.232**	.184**	.101
부부시간	.069**	.144	.018	.092	.032	.232**
가사부담	.103**	.048	.157**	.062	.065	.071
소비성향	.226**	.060	.126*	.204**	.352**	.189**
Adjusted R <sup>2</sup>	.604	.381	.554	.636	.625	.608
남편						
애정	.367**	.406**	.488**	.439**	.337**	.178*
성생활	.299**	.452**	.154*	.299**	.235**	.163*
부부시간	.026	-.041	.066	-.113	.068	.291**
가사부담	.066**	.044	.085	-.033	.124**	.043
소비성향	.224**	.112	.244**	.285**	.266**	.222**
Adjusted R <sup>2</sup>	.581	.734	.629	.524	.589	.432

註: \*는 p<.05, \*\*는 p<.01임.

한편 5개 역할 항목을 통한 夫婦關係 全般 滿足에 대한 說明力은 부인

과 남편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類似한 水準이지만, 가족생활주기별로 보면 부인은 단계 I 이 .381로 가장 낮고 이후는 .554~.636으로 높아지지만 남편은 이와는 달리 단계 I의  $R^2$ 가 .734로 매우 높고 그 이후 차츰 줄어든다. 역할 이외의 다른 變數는 고려하지 않아서 해석상 한계가 있겠으나 대체로 婦人은 결혼 초기보다는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配偶者의 役割에 依存하려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남편은 결혼 초에는 주로 애정과 성 등 배우자 역할에 대한 만족으로 부부관계 만족이 크게 영향을 받으나 차츰 그 影響力이 減少한다 하겠다.

## 2. 結婚生活에 대한 評價

1994년도 가족생활실태조사에서 結婚의 質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변수로는 結婚生活에 대한 價値評價로써,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이 지금보다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이용하여 '훨씬 나빠졌을 것이다', '다소 나빠졌을 것이다',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다소 좋아졌을 것이다',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라는 응답에 각각 5~1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결혼함으로써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이 아닌 부부가 하나의 사회적 단위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은 법적, 사회적으로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소득, 소비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며,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기존의 가족관계에 변화가 오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유무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같은 변화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보다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이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빠졌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결혼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본 것이다.

조사결과 결혼 전반에 대해 '훨씬 나빠졌을 것이다'와 '다소 나빠졌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즉 결혼에 가치를 두고 있는 비율이 부인의 28.5%, 남편의 51.3%로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sup>5)</sup>.

본 분석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15~59세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5~1점 척도의 평균을 내었는데 부인이 3.01이고 남편은 3.48이었다(表 5 참조). 家族週期段階에 따라서는 婦人の 경우 자녀 양육기인 단계 II에서 좀 낮아질 뿐 다른 단계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에 男便은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되면서 結婚에 대한 評價가 높아지는 경향이다.

〈表 5〉 性別 家族生活週期別 婦人과 男便의 結婚에 대한 評價

성별	전체(SD)	가족생활주기					F(df=4)
		I	II	III	IV	V	
부인	3.01(.96)	3.07	2.87	3.07	3.01	3.04	1.26
남편	3.48(.94)	3.31	3.35	3.62	3.53	3.68	3.96**
T	10.96**						

註: 1) 1~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평가정도가 높음.

2) \*\*는  $p < .01$ 임.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만족에서와 같이 結婚生活 全般에 대한 評價는 生活 水準, 自由, 尊敬, 精神的 安定, 父母와의 關係 등 具體的 項目에 대한 評價를 통해 나온다고 보고<sup>6)</sup> 이들 세부 항목들이 결혼 전반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5) 비교자료로는 통계청 및 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가정생활 만족도이다. 통계청(1995)에 따르면 부인 34.1%, 남편 40.3%가 전반적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갤럽조사연구소 조사(1983)에서는 3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영국, 서독의 80% 이상이나 일본의 63.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6) 이 5개 항목 이외에도 미혼에 비해 결혼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는 많고 개인차도 클 것이다. 『가족영역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에서도 5개 항목의 선정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결혼이 개인이 아닌 부부를 하나의 법적 단위가 되게 함으로, 이로 인하여 감정적, 정신적 안정을 찾게 되나 개인의 자유는 어느정도 제약을 받을 것이며, 사회적·경제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가족관계도 변화한다는 점에서 조사된 5개 항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이용하였다.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이들을 독립변수로重回歸分析을 하였다<sup>7)</sup>.

〈表 6〉 性別 家族生活週期別 具體的 評價 要因에 대한 評價

구체적 요인	전체(SD)	가족생활주기					F(df=4)
		I	II	III	IV	V	
부인							
생활수준	2.97(.94)	2.97	2.84	2.89	3.09	3.12	2.91*
자유	2.26(.92)	2.24	2.12	2.18	2.30	2.49	4.04**
존경	3.01(.85)	2.93	2.93	3.08	3.11	2.99	1.26
정신적 안정	3.30(.99)	3.47	3.19	3.28	3.33	3.25	1.03
부모와의 관계	3.34(.96)	3.16	3.35	3.44	3.39	3.29	1.10
남편							
생활수준	3.57(.91)	3.30	3.40	3.57	3.62	3.78	3.29*
자유	2.61(.99)	2.32	2.43	2.62	2.66	2.96	8.18**
존경	3.35(.82)	3.16	3.27	3.44	3.46	3.46	2.87*
정신적 안정	3.67(.92)	3.46	3.63	3.67	3.73	3.82	2.04*
부모와의 관계	3.45(.91)	3.27	3.28	3.39	3.63	3.64	6.18**

註: 1) 1~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평가 정도가 높음.  
 2) 전체 부인과 남편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부모와의 관계만이  $p < .05$ 이고, 나머지는 모두  $p < .01$ 임.  
 3) \*는  $p < .05$ , \*\*는  $p < .01$ 임.

남편은 결혼 전반 및 5개 구체적 항목에서 모두 남편과 부인의 평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부인·남편 모두 부모와의 관계나 精神的安定에 대한 평가가 높은 반면에 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表 6 참조). 부인과 남편의 評價의 差異가 가장 큰 것은 生活水準에 대한 것이다. 이는 가정경제에 대한 책임이 대체로 남편에게 있어 부인은 이것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스럽다는 役割에 대한 共同된 認識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

7) 5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남편은 정신적 안정과 부모와의 관계가 .567로, 부인은 정신적 안정과 타인으로부터의 존경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각된다. 가족생활주기별로 볼 때 男便은 구체적 5개 항목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와 같이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평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婦人은 절대적인 평가 정도가 낮은 생활수준이나 자유에 대한 평가는 변형된 U자형을 보이고 있을 뿐 이외 항목에서는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요인이 결혼 전반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精神的 安定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生活水準에 대한 평가이다(表 7 참조). 그 이외에 男便에게는 父母와의 關係의 표준회귀계수가 높다. 특히 단계 I에서는 부인의 경우 정신적 안정, 자유, 생활수준이 비슷한 강도의 중요성을 지니나, 남편은 정신적 안정의 표준회귀계수가 .670으로 매우 높고 이어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表 7〉 家族生活週期別 結婚生活 全般에 대한 評價에 影響을 주는 具體的 評價 要因의 標準回歸係數(Beta)

구체적 요인	전체	가족생활주기				
		I	II	III	IV	V
부인						
생활수준	.230**	.337*	.100	.415**	.273**	.176**
자유	.138**	.352**	.152**	.111	.150**	.104
존경	.136**	-.158	.172**	.113	.238**	.201**
정신적 안정	.388**	.362**	.410**	.338**	.293**	.378**
부모와의 관계	.128**	.095	.170**	.031	.116*	.135*
Adjusted R <sup>2</sup>	.580	.498	.527	.578	.716	.599
남편						
생활수준	.264**	.003	.320**	.314**	.369**	.215**
자유	.068**	.041	.070	-.038	.128*	.027
존경	.057*	.026	.007	.071	.008	.159*
정신적 안정	.350**	.670**	.362**	.413**	.146*	.339**
부모와의 관계	.219**	.222*	.226**	.083	.319**	.177*
Adjusted R <sup>2</sup>	.538	.639	.514	.491	.586	.500

註: \*는 p<.05, \*\*는 p<.01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즉, 男子에게는 신혼때 父母와의 圓滿한 關係 構築이 결혼에 대한 평가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결국 상당한 정도가 시집 식구들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부인의 몫임을 감안한다면 부인과 시부모의 관계로도 치환할 수 있겠다. 한편 결혼으로 인한 自由와 尊敬에 대한 評價는 婦人에게 相對的으로 主要 항목이 되고 있는데 자유에 대한 평가는 단계 I에서, 존경에 대한 평가는 단계 IV, V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남편도 결혼함으로써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지만 이것이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에 주는 영향은 부인에 비해 적다.

#### IV. 結婚의 質이 幸福感에 미치는 影響

만족감과 행복감은 동일한 심리적 主觀的 經驗을 내포하고는 있으나 滿足이 판단되거나 認知된 經驗을 의미한다면 幸福은 感情에 의한 經驗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족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52.2%, 여자의 51.8%가 행복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데, 남자의 62.1%, 여자의 70.6%가 人生의 幸福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냐는 질문에 '家庭의 幸福'이라고 응답하여 夫婦關係를 포함한 結婚의 質이 幸福感에 상당한 影響을 미치고 있음을 쉽게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 한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도시가구 생활만족도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부부관계가 행복의 우선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이 가족관계라는 보고를 하고 있다(1997. 1. 3일자 중앙일보 12면).

전체적 행복감과 결혼의 질과의 因果性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Glenn(1990)은 다른 민족에 비해 유대인이 結婚의 質과 自我尊重感의 相關性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家庭에 많은 價値를 두는 유대인의 결혼의 질이 심리적 안녕을 나타내는 변수인 自我尊重感에 영향

을 더 많이 미치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Brodbar-Nemzer, 1986)를 통해서 동일한 심리적 안녕 변수인 행복이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결혼의 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因果關係의 설정은 妥當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因果性을 가정으로 하여 결혼의 질이 행복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며 性 및 家族週期別 差異를 알아보고자 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결혼의 질을 반영하는 변수로서는 夫婦關係 전반에 대한 滿足과 結婚生活 전반에 대한 評價의 單一尺度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의 허용범위 내에서 年齡, 居住地, 教育水準, 社會的地位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健康程度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건강정도는 결혼의 질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나 여기서는 독립변수로 처리하였다. 居住地는 도시 1, 그 이외에는 0을 주어 가변수로 처리하였으며 社會的地位와 健康水準은 응답자가 인식한 主觀的 評價로 1~5점 척도이다. 회귀분석은 2가지 종류로 처음에는 결혼생활 관련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하였으며, 그 다음 분석은 사회인구학적 및 건강 관련 변수를 모두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sup>8)</sup>.

먼저 <表 8>은 조사 자료 중 대상자를 60세 미만 기혼자로 제한하고 무응답을 제외하여 幸福感을 點數化 한 것으로 1~5점 척도에서 남편·부인 모두 평균 3.6점 정도가 된다.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는 부인은 행복감 정도는 유의하게 줄어들고 남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그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表 9>와 같이 幸福感에 있어서 夫婦關係 滿足度가 매우 중요한 변수이고 남편보다는 부인에게서 더 중요하다. 한편 結婚生活에 대한 評價는 부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지만 그 정도는 부부관

8) 사용된 독립변수들간의 단순상관계수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남편은 -.367, 부인은 -.4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연령과 거주지로 남편 .331, 부인 .265이고 그 이외에는 모두 .200 미만으로 多衆共線性(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계 만족도에 비해 매우 낮고 남편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행복이라는 心理的 安寧은 결혼의 외적 요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心理的 滿足을 통해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이다. 남편에 비해 부인이 느끼는 부부관계 만족감이나 결혼 전반에 대한 평가는 낮다. 그러나 結婚生活에 대한 滿足感이 一般的 幸福感에 미치는 影響力은 부인이 높다. 두 가지 결혼의 질 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했을 때 수정된 R<sup>2</sup>가 부인 .251, 남편 .136이고, 社會經濟 및 健康 要因을 독립변수에 포함한 회귀분석 2에서의 부부관계 만족의 표준회귀계수 값이 부인 .358, 남편 .286이고, 결혼에 대한 평가의 표준회귀계수 값이 부인 .132 남편 .025로 나타나 부인이 남편보다 結婚生活에 더 依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8〉 家族生活週期別 婦人과 男便의 幸福感 程度

성별	전체(SD)	가족생활주기					F(df=4)
		I	II	III	IV	V	
부인	3.57(.66)	3.77	3.62	3.64	3.47	3.44	4.71**
남편	3.60(.68)	3.69	3.70	3.61	3.58	3.52	1.88

註: 1) 1~5점 척도로 대단히 불만 - 대단히 만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음.

2) \*\*는 p<.01임.

〈表 9〉 家族生活週期別 結婚의 質이 幸福感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標準回歸計數(Beta)

변수	전체	가족생활주기				
		I	II	III	IV	V
부인						
회귀분석 1						
부부관계 만족도	.450**	.515**	.429**	.509**	.381**	.407**
결혼에 대한 평가	.132**	.027	.210**	.159*	.145	.126
Adjusted R <sup>2</sup> 1)	.251	.236	.284	.329	.187	.194

〈表 9〉 계속

변수	전체	가족생활주기				
		I	II	III	IV	V
회귀분석 2						
부부관계 만족도	.358**	.537**	.304**	.471**	.310**	.367**
결혼에 대한 평가	.103**	.002	.180**	.126	.066	.053
거주지	.039	.051	.041	.049	-.043	.148*
연령	-.103**	-.015	-.016	-.130*	-.194**	.068
교육정도	-.013	.108	-.081	.147	.104	-.138
사회적 지위	.244**	-.028	.247**	.129	.234**	.222**
건강 정도	.111**	-.259	.254**	.123	.104	.159*
Adjusted R <sup>2</sup> 2)	.334	.248	.401	.445	.279	.270
Adj. R <sup>2</sup> 차이(1)-2))	.083	.012	.117	.116	.092	.076
남편						
회귀분석 1						
부부관계 만족도	.362**	.494**	.355**	.388**	.343**	.329**
결혼에 대한 평가	.036	.120	.051	.056	.025	-.098
Adjusted R <sup>2</sup> 3)	.136	.261	.130	.148	.115	.099
회귀분석 2						
부부관계 만족도	.286**	.385**	.277**	.271**	.247**	.333**
결혼에 대한 평가	.025	.161	.015	.048	.021	-.130
거주지	.002	.112	-.011	-.023	.011	.035
연령	-.030	.202	-.041	-.016	-.121	-.046
교육정도	-.000	-.134	.057	.054	-.101	-.108
사회적 지위	.207**	.092	.223**	.285**	.257**	.161*
건강 정도	.212**	.246*	.174*	.298**	.260**	.180*
Adjusted. R <sup>2</sup> 4)	.231	.268	.204	.315	.251	.137
Adj. R <sup>2</sup> 차이(3)-4))	.095	.003	.066	.167	.136	.038

註: \*는 p<.05, \*\*는 p<.01임.

한편 그 이 외에는 健康과 社會的 地位에 대한 평가가 행복감에 영향을 주며 연령은 부인에게만 작용하고 거주지, 교육수준은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教育水準보다는 社會水準에 대한 認識이 행복에 더 영향을 준다는 연구(이동원, 1987)와는 맥을 같이 한다.

가족생활주기별로 보면 子女出産 以前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그 이후에는 남편보다 부인에게 더 큰 意味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婦人에게는 부부관계 만족이 결혼 모든 주기에 걸쳐 어떤 변수보다도 행복감에 커다란 작용을 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男便의 경우는 막내자녀가 7~12, 13~18세로 子女教育에 주력하는 가족생활주기 단계 III, IV에서는 부부관계 만족도보다는 社會的 地位나 健康變數가 幸福感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 1에 비해 분석 2의 수정된  $R^2$ 의 증가 정도도 이 때가 가장 높다. 그러나 남편도 자녀출산 이전인 단계 I에서는 결혼의 질만을 독립변수로 한 분석의 수정된  $R^2$ 값이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婦人보다 높을 뿐 아니라 분석 1과 분석 2의 차이가 거의 없어 子女出産 以前에는 결혼의 질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보다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子女出産과 더불어 그 값은 급격히 감소한다.

이처럼 결혼 후 子女出産 以前에는 부부관계 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과 남편이 별 차이가 없었으나, 가족생활주기 진행에 따라 남편의 행복보다는 부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婦人과 男便의 活動 領域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다. 남편은 대부분이 社會活動을 통해서 자신을 開發하며 發展하는 반면에, 부인은 활동 영역이나 관심분야가 家庭에 限定되어 사회와는 단절되는 경향이 많고 이와 같은 경향은 나이가 들수록 深化되는 양상이다. 우리 사회는 특히 地域社會 活動이나 奉仕活動이 매우 한정적이고, 또한 부인이 취업을 한다고 하여도 활동영역의 확대보다는 가사노동에 이은 또 다른 負擔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婦人의 就業 여부만으로 사회활동 욕구의 성취 및 여성지위의 향상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책임이라는 점에서도 남편은 바깥 일, 부인은 집안 일이라는 二分法的 思考가 부인을 취업에 관계없이 家庭과 男便에게 依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으로 기혼여성의 社會活動의 機會가 擴大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V. 結論 및 政策課題

이 연구는 結婚의 質이 一般的 幸福感에 미치는 影響의 남·녀 및 가족 생활주기별 차이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혼의 질은 夫婦關係 滿足程度와 結婚에 대한 價値評價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 다 부인보다는 남편이 높으며 가족생활주기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즉, 夫婦關係 滿足은 부인·남편 모두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지만 結婚에 대한 價値는 남편의 경우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거나 부인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一般的 幸福感은 남편에 비해 부인이 가족생활주기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減少하는 경향이 강한데, 夫婦關係 滿足度는 이 행복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포괄적인 결혼에 대한 평가보다는 配偶者에 대한 滿足이 훨씬 더 많이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남편보다는 부인에게 중요하다. 婦人은 모든 가족생활주기에 있어 사회적 지위나 건강보다는 夫婦간의 滿足度라는 心理的, 主觀的인 評價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男便은 행복감에 대한 결혼의 질의 설명력이 자녀출산 이전에는 매우 높으나 자녀출산 이후 점차 감소하고, 특히 막내자녀가 초·중고생일 때는 健康이나 社會的 地位가 부부관계 만족도 보다 높은 相對的 重要性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부인은 남편에 비해 結婚의 質은 낮으나 결혼의 질이 행복감에 미치는 影響力은 남편보다 크다. 즉, 부인이 남편에 비해 결혼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는데, 이는 안정을 추구하려는 성향,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사회활동 정도 및 관심분야 등 부인과 남편의 선천적 및 후천적 차이 등에서 복합적으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결혼의 질을 반영하는 변수 중 夫婦關係 滿足에는 배우자의 愛情, 性, 消費性向이 상대적으로 중요한데, 특히 성은 자녀출산 이전에는 절대적

의미를 갖으며 그 이후에도 부인보다는 남편에게 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부인에게는 子女 養育期에는 배우자의 家事負擔이, 자녀를 모두 키운 다음에는 夫婦가 함께 보내는 時間의 量에 대한 만족이 남녀 모두의 부부관계 만족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전반에 대한 평가에는 精神的 安定과 生活水準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데, 남편의 경우는 父母와의 關係, 그리고 부인은 自由나 尊敬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家族生活週期 측면에서 부부관계 만족 및 이것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 자녀출산 이전인 단계 I 과 자녀양육기인 단계 II 사이의 변화이다. 子女의 存在 및 子女養育으로 인한 家事勞動의 急增, 子女養育費 增加 등으로 부부관계를 비롯한 결혼의 질은 弱화되고 따라서 이것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진다. 부부관계 만족 자체도 자녀출산 이전에 더 많은 만족을 느끼던 남편에게서 더 심하게 감소하고 이것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남편에게서 감소의 정도가 심하다. 그러나 幸福感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이 감소된 만큼을 子女 등 다른 要因이 채워 주고 있음을 유추케하였다.

結婚의 質은 결혼의 安定性을 높이므로 이혼을 감소시켜 健全한 家庭을 維持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다. 통계에 의하면 離婚 事由 중 夫婦간의 不和 比率이 1970년 64.9%이던 것이 1985년 80%, 1994년 83%로 증가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離婚時 結婚期間도 달라져서 1994년도 이혼자의 平均 離婚年齡은 남자 38세, 여자 34세로 同居期間은 9.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995).

따라서 행복한 가족의 삶을 위해서는 부부관계를 포함하여 家族生活에 대한 폭넓은 理解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사회비용의 절감 효과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社會나 政府 次元의 政策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이를 家庭의 責任으로 하려는 경향이 컸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위한 政策課題로

써 家族生活教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家族生活教育은 그 자체가 多次元的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家族과 個人의 相互關係를 發展시키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潛在力을 일깨워 주도록 인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平生發達的 教育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간 상호관계, 자아 이해, 인간발달과 성장, 남녀교제, 결혼과 부모됨의 준비, 육아, 사회화, 의사결정, 성, 자원관리, 가족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 가족관계, 도덕성 등을 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에 공포된 社會教育法 施行令에서 이를 10개 社會教育 領域 중 하나로 규정하여 制度的인 바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學校教育 및 社會教育 機關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생활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家族의 機能이나 役割 등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家庭을 構成하고 維持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學校를 통한 生涯教育을 제대로 받아야 하며 동시에 社會教育機關을 통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족을 구성하여 남편과 부인이 되고 자녀의 출산으로 부모가 되며 나아가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켜 독립시키는 등 생애 전반에 걸친 機能과 役割의 變化에 대한 長期的 認識과 計劃 및 準備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특히 結婚初期 性的 重要性을 감안하여 未婚男女를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性教育도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教育이나 政策은 물론 단기간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長期的인 努力을 필요로 하고, 어느 특정 부처가 이를 담당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삶의 객관적인 질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주관적 삶의 질 또한 이와 같은 객관적 조건들과 더불어 향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울러 婦人들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子女養育과 家事를 전담하고 있으나 이것이 부인의 결혼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부인 스스로 多樣한 分野에 關心을 가지고 活動領域을 넓혀 나가야 함은 물론, 가족과 사회가 이를 도와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美淑·金明子, 「都市夫婦의 結婚 安全性 및 그 關聯變因 研究」,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8권 제1호, 1990, pp.171~183.
- 徐文姬, 「結婚生活이 婦人健康에 미치는 影響」, 『保健社會論輯』, 제14권 제1호, 1994, pp.111~125.
- 李東援, 「都市夫婦의 結婚의 質에 관한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7.
- 張鉉燮·金顯玉·裴花玉, 『家族領域의 삶의 質과 政策課題』,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 鄭基源·李相暎, 「夫婦의 同質性이 結婚의 質에 미치는 影響」, 『保健社會論輯』 제12권 제1호, 1992, pp.92~107.
-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1995.
- 韓國女性研究會 編, 『韓國家族의 夫婦關係』, 社會文化研究所, 1992.
- 韓國갤럽調查研究所, 『韓國人的 家庭生活과 子女教育』, 1983.
- Benin & Niensdedt, "Happiness in Dual- and Single-earner Families: The Effect of Marital Happiness, Job Satisfaction and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7, No.4, 1985, pp.975~984.
- Booth, Alan, David R. Johnson, "Declining Health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6, No.1, 1994, pp.218~223.
- Brodbar-Nemzer, "Marit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How Jewish Families are Differ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8, No.1, 1986, pp.89~98.

- David R. Johnson, T. O. Amoloza, and A. Booth, "Stability and Developmental Change in Marital Quality: A Three-wave Pane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4, No.3, 1992, pp.582~594.
- Duvall, E. M., *Family Development*, 1962.
- Fincham & Bradbury, "The Assessment of Marital Quality: A Revolu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9, No.3, 1987, pp.797~809.
- Glenn, Orval D., "Quantitative Research on Marital Quality in the 80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2, No.4, 1990, pp.818~831.
- Glenn & Weaver, "The Contribution of Marital Happiness on Glob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3, No.1, 1981, pp.161~168.
- Saenz, Rogelio, W. J. Goudy, and F. O. Lorenz,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Marital Relation on Depression among Mexican-American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1, No.1, 1989, pp.239~252.
- Spanier & Lewis,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42, No.4, 1980, pp.825~839.
- Arne Mastekaasa, "Marriag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me Evidence on Selection into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4, No.4, 1992, pp.901~911.
- Vailiant & Vailiant, "Is the U-Curve of Marital Satisfaction an Illusion? A 40 Year Study of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5, No.1, 1993, pp.230~239.



*Summary*

---

## The Differential Effect of Marital Quality on General Happiness

*Moonhee Su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differential effect of quality of marriage on general happiness by sex and family life cycle. For this analysis data of 20-59 years old currently married people surveyed by KIHASA in 1994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family life cycle was divided into 5 stages: with no child and less than 40, last child is preschool age, last child is primary school age, last child is middle or high school age and last child is 19 or over.

The quality of marriage was measured using two questions: the extent of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evaluation of marriage compared to if-not-married life. If the former is more psychological, the latter is more social. Both a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husbands than wives. However, the life cycle differential showed a different pattern: marital satisfaction decreased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stages, while, the evaluation of marriage itself become more positive along the life stage, especially among husbands.

For marital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spouses' love, sex life, and consumption patterns were more important than housework sharing or hours spent together. In later stages, satisfaction with marital sex life had more influence on husbands' happiness than wives'. In stage II, with preschool children, satisfaction with housework sharing was an important factor for wives, and in the last stage, hours spent together was important for both. As for the evaluation of marriage, mental stability and living standard was most influential.

As with other prior research results, thes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marital quality had a very significant effect on general happiness. Generally, the effectiveness is higher among wives than husbands. Particular, marital satisfaction, rather than evaluation of marriage, is critical to general happiness, and the effectiveness is stronger among wives, except in stage I. In stage I with no child, husbands' happiness is affected more by marital quality compared to wives, though it decreased drastically after that. Compared to other factors, such as health or social status, it had the greatest effect in every stage among women, while for the husband, self-evaluated health and social status had more of an effect in stages III and IV, when their last child was either a primary, middle or high school student.

The analysis suggested that family life had more of an influence on wives than husbands, regardless of the relatively low marital quality among wiv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quality of life, including not only physical but also psychological aspects, some measures to increase and maintain high marital quality can be suggested as long term policy: family life education in school and social educational institutions. In Korea, family life education is very limited. Taking into the consideration of the recent weakening function of the family and increasing divorce rate, education about changing roles and function according to family development, parenthood, spousehood, child rearing, aging, etc., are necessary for a healthy family and for the well-being of the people.